

농촌·농업 근본적 개혁방안 마련 스마트팜·인력, 구조적 변화 예고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농업과 농촌의 구조개혁 방안을 올해 말까지 내놓겠다고 밝혔다.

그는 기후변화 등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정부 전반부의 농식품 분야 성과로는 'K-푸드+' (K-푸드 및 전후방산업)의 수출 확대, 농촌 체류형 쉼터 등 농지규제완화, 개 식용 종식 등을 꼽았다.

송 장관은 이날 세종 농식품부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정부 2년 반 국정성과 및 향후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향후 펼칠 정책 가운데 구조개혁이 시급하다고 봤다. 이에 "스마트, 인력, 쌀 산업, 농지, 기후변화 대책 등 5가지를 중심으로 농업·농촌 구조개혁 방안을 연내에 완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 사례를 언급한 송 장관은 "농업인의 날(11월11일)에 한쪽에선 산지 쌀값 하락에 대한 시위로 쌀을 쌓아놓고 있었는데, 한쪽에선 가래떡데이를 기념해 떡을 나눠주고 있었다"고 전했다.

그는 "이런 광경을 보는데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다"며 "한 시대에 한 공간에 있는데 다른 상황에 놓여있는 것을 보고 이게 농업·농촌의 현실인가 싶었다"고 했다. 이어 무엇을 바꿔야 하는지 점검해본 뒤 나아가야 할 길을 생각해보고자 한다고 말했다.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해서는 재배적지를 바꾸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나라 안에 없을 수도 있고 기존과는 달리 평면이 아닌 위, 아래 등 입체적으로 생각해야 한다"며 "스마트팜뿐만 아니라 노지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13일 세종청사에서 현 정부의 '농식품 관련 전반부 성과 및 후반기 계획'을 밝히기 위해 언론설명회장에 들어서고 있다. /농식품부

농식품부, 5대 개혁과제 추진 K-푸드 수출확대·농촌쉼터 확산 기후변화 대응·쌀 산업 재편 개혁 '체류형쉼터' 도입, 농촌 유입 확대 쌀값 정상화 위한 재배면적 축소

도 기후변화 컨트롤을 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비축역량 제고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배추나 무는 저장할 수 있는데 상추나 깻잎은 비축을 하지 못한다. 이런 채소들을 6개월 정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춘다면 기후변화에 대한 컨트롤을 상당 부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송 장관은 밝혔다.

쌀값 정상화에 대해선 "재배면적을 감축할 예정인데 어느 정도로 감축해야 하는지는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쌀은 현재 품종과 품질을 따지지 않고 양으로 가격을 매기는데, 가격이

안 질로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올해 1월 장관으로 취임한 이래 현장반응이 좋았던 정책 중 하나로 '농촌 체류형 쉼터'를 들었다.

이는 도시민이 자신 소유의 농지에 지을 수 있는 임시 숙소로, 규제가 따랐던 농막과 달리 숙식이 가능하다. 연면적 33㎡(10평) 내 가설 건축물 형태로 전용 허가절차 없이 지을 수 있다.

내년에는 이 "체류형쉼터를 단지화해, 임대 형식으로 (제도를 확산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는 농지법의 추가 개정이 요구되는 대목이다.

또 'K푸드+'가 이제 브랜드화 됐으며 굉장한 성과라고 자평했다. 송 장관은 "사람들이 K-푸드에 붙는 '+'의 의미를 묻는다. 이에 대해 대답해주면 고개를 끄덕인다"고 전했다. '+'란 K-푸드에 농기자재·동물용의약품 등 전후방산업을 더한 개념이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metroseoul.co.kr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 부산에 혁신신약연구원 설립

지역경제·바이오 혁신 앞당긴다

산업부, 유법민 정책관 개원식 참석
내년까지 대규모 연구인력 채용

항체의약품 연구개발 거점이 부산에 구축됐다.

바이오 분야 고급 연구인력 채용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유법민 투자정책관(사진)이 13일 부산에서 개최된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사의 혁신신약연구원 개원식에 참석했다고 밝혔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암, 난치성 질환 등 항체의약품 제조·연구개발 기업으로, 충북 오송에 항체바이오의약품 위탁생산(CDMO) 시설을 운영 중인데, 이번에 총 10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부산에 혁신신약연구원을 개원했다.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는 췌장암, 난소암 치료제 등 항체신약 16종의 신



약 후보물질을 개발 중이며, 이번 혁신신약연구원 개원을 통해 국내에서 연구개발·임상·상업화·생산에 이르는 항체신

약 전주기적 지원이 가능한 혁신거점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내년까지 석·박사급 위주로 총 116명의 연구인력을 채용할 계획으로, 바이오의약품 기술역량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전망이다.

유법민 투자정책관은 이날 축사를 통해 "프레스티지바이오파마와 같은 글로벌 혁신기업들이 마음껏 역량을 펼칠 수 있는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안정적 통상기반 마련, 기술인재 양성, 규제 개혁과 함께 외국인 기업에 친화적인 정주여건 조성 노력도 지속하겠다"고 밝혔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권익위

장애인학대 처벌 강화 지자체 감독의무화 권고

앞으로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할 경우 행정처분 기준이 학대유형과 정도에 따라 세분화되고 학대행위자에 대한 취업제한 범위도 넓어질 전망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장애인 시설 내 학대행위에 대한 제재처분 실효성 강화방안'을 마련해 보건복지부에 권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장애인복지시설에서 학대행위가 발생하더라도 학대의 유형이나 정도를 고려하지 않고 1차 위반에 대해 개선명령만 가능하다.

권익위는 장애인 학대 행위의 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세부적인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하고, 시설 내 학대행위 발생 시 학대 행위자에 대한 인사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의무적으로 확인하도록 권고했다. 또한, '노인복지법' 개정사항을 반영해 장애인 학대 범죄자의 취업제한대상기관을 확대하도록 했다.

/김대환기자 kdh@

DC 전력망 기술 중심, 2170만弗 수출 성과

한전 빅스포 성황리 폐막

국내 대표 에너지산업 박람회인 한전 빅스포(BIXPO) 기간 중 2170만달러 수출계약이 체결됐다.

한국전력공사는 지난 6일~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빅스포 2024'가 2만여명의 관람객이 방문한 가운데 성공적으로 마무리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10년째를 맞은 이번 행사는 '에너지 미래로 향하는 여정'을 주제로 에너지 분야 전반의 현 수준과 미래 기술 트렌드를 선보이며, 에너지 신기술과 신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제공했다.

특히 미래 에너지 신기술들을 선보였고, 행사 전반에 걸쳐 DC(직류) 전력망 기술을 핵심 주제로 삼아 에너지 전환 시대 미래 방향성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올해 첫 시행된 신기술 공개행사(Unpack)에는 유니콘, 대기업 등 혁신기술 보유 8개사가 참여해 세계 최고·최초 기술을 공개해 전문가와 관람객의 이목을 끌었다.

LS 일렉트릭, LS 전선, HD 현대일렉트릭, 아모지, 스탠다드에너지, 포네이처스, 코리아모빌리티 등 주요 에너



한국전력이 지난 6~8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빅스포 2024' 신기술 공개행사에서 에너지 신기술을 공개하고 있다. /한전

지 기업들은 인공지능(AI)과 친환경 전력망 관련 첨단 기술을, 한전과 발전5사 등 에너지공기업들은 DC 전력망, 지능형 디지털 발전소(IDPP) 등 차세대 에너지 신기술을 선보였다.

특히, 수출상담회에는 국내외의 40여개사가 참여해 MOU 8건을 포함해 총 11건, 2170만달러의 수출계약을 성사시키는 성과를 거뒀다.

한전 관계자는 "이번 빅스포 2024는 직류 전력망 등 기술 혁신을 통해 미래 에너지 산업의 비전을 제시하며 글로벌 기술 엑스포로서의 위상을 확립했다"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에너지 기술과 비전을 통해 전력산업 발전을 선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

베트남에 콜드체인 복합물류센터 구축

해수부, 상온·냉동 3만7843㎡ 규모

해양수산부는 이달 14일(현지시간) 베트남 하이퐁시 남딘부 향만의 단부 갯하이 경제 특별구역에서 제일건설이 시공하는 콜드체인 복합 물류센터 사업이 착공한다고 13일 밝혔다.

해수부는 그간 하이퐁 지역에 진출한 국내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개선하기 위해, 지난 2022년 베트남 북부 지역에 콜드체인 물류센터 구축을 위한 타당성 검토를 지원했다. 이번에 착공되는 물류센터는 상온과 냉동 창고를 모두 갖춘 3만7843㎡(1만1447평) 규모의 복합물류센터이다. 오는 2026년부터 본격 운영될 예정이며, 다수의 국내기

업이 입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하이퐁시는 베트남 북부의 주요 항구 도시로, 하이퐁시 동남부에 위치한 남딘부 산업단지는 항만 배후 시설과 보세구역 모두 갖추고 있는 핵심 물류 거점으로 평가받는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그간 정부는 우리 기업이 안정적인 물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베트남뿐 아니라 유럽, 미국, 동남아 등에서 물류센터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고 말했다. 또 "현재 5곳인 해외 물류센터를 2027년까지 8곳으로 확대하는 등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해외 물류 거점 확보를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했다.

/세종=김연세 기자

환경부, 에너지 전환·탄소감축 방안 모색

이들간 '환경기술개발 성과교류회'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오는 14일부터 이틀간 경기 광주시 곤지암리조트에서 연구성과 활용 촉진을 위한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 사업을 주제로 '환경기술개발사업 성과교류회'를 개최한다고 13일 밝혔다.

유기성 폐자원 바이오가스화 2개 분야는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과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이다. 이들 사업은 가축분뇨와 음식물쓰레기 같은 유기성 폐자원을 전처리, 혐기소화 등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바이오가스를 생산해 에너지로 활용해 탄소 감축에 기여하는 것을 목

표로 한다.

'자원·에너지 회수형 고농도 하·폐수처리공정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26년까지 진행되는 실증 사업으로, 가축분뇨와 하수 찌꺼기 등을 통합 처리하여 자원과 에너지를 회수하는 공정을 개발한다. 이를 통해 바이오에너지화 시설을 활성화하고 물 환경기초시설의 탄소 중립을 실현한다.

'폐자원 활용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개발 사업'은 2022년부터 2027년까지 진행되며, 도축 및 농산 잔재물 등 미활용 생물성유기물질(바이오매스)를 활용한 에너지 전환 실증 기술을 개발하는 사업이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에너지 지원 확보와 이산화탄소의 포집·정제를 통한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세종=김대환 기자 kdh@